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주일 미사 :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기
- 대림 시기 동안 대림초를 가지고 기도, 선행 실천하기

(자) 대림 제3주일(2022. 12. 11.)

* 오늘 전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또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주일입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아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더욱 많은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 35,1-6L.10): 1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2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레바논의 영광과, 카르멜과 사론의 영화가 그곳에 내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3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붙여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4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군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5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6 그때에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10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이들만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에 들어서리니,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 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 제2독서(야고 5,7-10): 7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8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

까웠습니다.

9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 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10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 복음(마태 11,2-11): 그때에 2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5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7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10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 알렐루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사랑이신 주님, 세상 속에 머무르며 주님을 전하는 교회를 굶어살피시어, 현대의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힘겹게 생활하는 이들을 먼저 찾으며,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하소서.

2.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일상이 바뀌는 세상을 살피 주시어, 모든 이가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 내며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로자이신 주님, 경제적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굶어살피시어, 건강을 지켜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복음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나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성탄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 입 당: 대림초 점화
- 봉 헌: 221 (받아주소서), 332 (봉헌)
- 영성체: 153 (오소서 주 예수여),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 견: 89 (주 하느님 자비로이)

공지 사항

♣ 성탄 판공성사 안내

- 판공성사 기간 : 12월 18일(대림 제4주일) 까지
- 미사 15분 전에 드립니다.(침묵 유지)

♣ 대림시기 특강 안내

- 주제 : '미사를 통한 치유'
- 내용 : 제1장. 치유의 장소인 성당(대림 제2주일)
 제2장. 말씀의 전례(대림 제3주일)
 제3장. 성찬의 전례(대림 제4주일)

♣ 교무금 안내

올 한해 교무금을 납부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12월 안으로 미납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교무금액도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회의

- 사목회의 : 금일(11일) 미사 후, Sala giochi
- 1구역 모임 : 17일(토), 15:00, 사제관

♣ 봉사자

	오늘(11일)	다음 주일(18일)
제1독서	엄기용 안토니오	정상현 안토니오
제2독서	장세란 세실리아	우윤정 마리아
복사	엄채윤 엘리사벳	강윤이 스텔라
복사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안태오 마태오
계단·화장실	엄기용 안토니오	정상현 안토니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42.70
- 교무금 € 0.-